조계종 역점 사업 '천년을 세우다' 본격화

미래본부 2월 7일 첫 추진단장 회의…사업 계획 논의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명상센터 등 본격적인 사업 돌입
4월19일 오후2시 추진위 출범식
바로모시기 윤달 3·7 특별 기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미래본부가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명상센터 건립 등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역점사업 '천년을 세우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계종 미래본부(추진위원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단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문별 추진단장은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추진단장 종천 스님과 탄원 스님, 명상센터 추진단장 허운 스님, 교구특성화 단장 지현 스님과 덕문 스님, 미래세대 인재양성 단장 원명 스님 등이다.

추진단장들은 회의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회 방안 및 기도회 △명상센터 건립 및 프로그램 개발 △교구 활성화 △미래세대 인재양성 △천년을 세우다 모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천년을 세우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출범식은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년을 세우다 동참발원, 출범사, 종정교시 격려사 등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해 다양한 기도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도회가 진행되며 열암곡 도감은 본오 스님이, 기도법사단장은 환풍 스님이 맡는다. 이웃종단 및 종교 지도자와 사회 각계, 언론을 대상으로 각 절기별 순례를 시행, 순례 기도 동참도 이끌어낸다.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는 4월 27일 오후 2시,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윤달 3·7일 특별기도는 3월 28일~4월 17일 매일 오전 11시 봉행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단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증대할 계획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명상센터 건립이 수도권 및 주요 거점지역에 종단에서 직접 건립하는 시설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수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조계종은 명상지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D-웰니스(Dhamma-Wellness)'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불교 명상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구본사 활성화 연구와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제37대 주요종책인 '교구 특성에 맞는 지역 중심의 종교활동 영향력 제고'를 위해 중앙과 교구에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종교환경 및 신행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연구와 지역불교 활성화 및 종교단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급과 상담 및 지원도 시행된다. 장학금은 추천 교구본사와 5:5 매칭으로 진행되며 2024년 총 2억 원 규모로 시작, 2025년부터는 총 4억원 규모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천년을 세우다 사업 기금 모연에는 3년간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직영·특별분담사찰 등 모연 약정, 사찰 홍보를 통한 CMS와 ARS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장 진우 스님은 "회의를 통해 사업별 단장을 맡고 있는 스님과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교구활성화는 물론 각 사찰마다 특성을 살려 좀 더 미래적이고 효과적인 포교를 위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실행, 불교중흥과 더불어 포교 전선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본부는 전국불자들을 대상으로 '윤달 3·7일 특별기도'를 접수 받는다. 윤달 3·7일 특별기도는 3월 28일(윤 2.7)~4월 17일(윤 2.27)일 매일 오전 11시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진행된다. 열암곡 도감 본오 스님과 기도단장 환풍 스님이 매일 번갈아 축원기도를 올린다. 기도비는 가족당 10만 원 이며 전국사찰에서 접수를 받아 미래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종단에 접수된 기도비는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및 명상센터 건립, 미래세대 양성 등 미래불교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관련 국내외 기자회견

'생명존중' 기치 아래 43일 '붓다로드' 걷는다

2월 7일 공식 기자회견 개최
인도순례 일정, 의미 등 발표
印정부, 6일 현지서 회견 열고
"상월 순례 전폭적 지원"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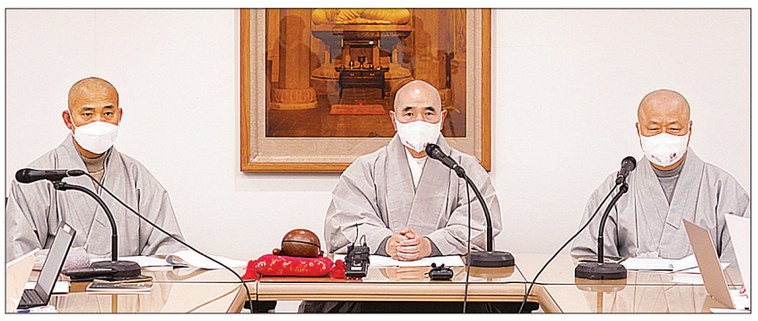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생명존중'의 대사회 메시지 속에 진행된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상월결사 인도순례 일정 및 의미 등을 밝혔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43일간의 대장정으로 진행된다. 수행과 전법포교,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 위한 43일간 1167km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4대 결사정신을 인도순례를 통해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43일 여정동안 순례단 수행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고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 종호 스님은 "부처님 자취를 따라 걸으며 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온 세상에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월결사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결사 의미와 순례 소개, 실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밝혔다.

세부일정에 대해 순례단장 원명 스님은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순례단이 목조부처님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한다"며 "사르나트에서 입재식과 함께 각 성지에서 법회가 열리며, 3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회향법회와 3월 23일 조계사에서 회향식이 열린다"고 소개했다.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의식도 성지마다 펼쳐진다. 2월 11일 바라나시 녹야원 입재법회 후 2월 22일 마하보디사원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 2월 25일 라지기르 영축산에서 법화경 독송법회, 3월 9일 열반지 법회 및 가사공양의식, 3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는 금강경 봉정과 공양의식이 진행된다. 순례단이 거쳐가는 나란다대학에서는 종립 동국대가 새롭게 문을 여는 나란다대학 측과 공동으로 6개국 학자들이 동참하는 '순례'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순례 도착에 맞춰 동국대는 나란다대학과 자매결연도 맺을 예정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등 한국불교 역량이 집결되는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 성도지 기도법회와 순례 회향법회에 참석한다. 특히 회향법회에 맞춰 조계종은 연등회 전시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 사찰음식 시연·만찬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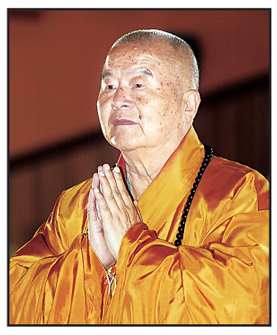
이에 앞서 2월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정보통신부·주인도 한국대사관 주최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는 상월결사 순례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를 주제로 인도 정부와 한국 대사관이 합동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현지 역시 상월결사의 인도 순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푸르바 찬드라 인도 정보통신부 차관은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이번 불교 성지순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순례가 전 세계 최고 규모의 성지순례에 버금가는 중요한 순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재복 주인도 한국대사관 대사는 "이번 순례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순례"라며 "현재 긴장과 갈등이 난무하는 정세 속에서 순례단이 전하는 평화와 연민의 메시지는 더욱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대사 열반

2월 5일 지병으로 입적…97세
불광산사 창건주 '청빈' 강조해
진우 스님 조사 "속환사바하길"



오늘날 실천불교의 표준모델로 꼽히는 대만 불광산사를 이끌어온 성운 대사가 2월 5일 입적했다. 세납 97세, 법랍 85세.

성운 대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중국 장쑤성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성운 스님은 12세인 1938년 난징 치샤산 대각사로 출가, 임제종 48대 법맥을 이어받았다.

1949년 대만으로 건너간 성운 대사는 1967년 5월 16일, '인간불교'의 서원을 세우면서 불광산사를 창건했다.

불광산사는 대만불교 현대화, 세계화의 상징일뿐 아니라 포교와 성역화의 전형으로 전 세계 불교인의 이목을 받아왔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불광산사는 전 세계 300여 개의 사찰, 병원, 대학, 도서관, 미술관 등을 두루 갖추면서 국제적인 조직체계로 성장했다. 신도수도 2백만 명이 넘는다.

성운 대사가 50년간 잡음 없이 불광산사를 이끌어온 배경에는 '타인과 나 모두 이롭고 즐거워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지금은 거대 사찰이 됐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빈곤'(청빈)이다. 성운 스님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대만과 미국, 호주 등에 5개 대학을 세우면서 "대학 설립은 불광산을 빈곤하게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영광은 부처님께 돌리고, 원만성취는 대중에게 돌리고, 이익은 사찰에 돌리고, 공덕은 사회에 돌린다'는 게 불광산사의 정신이다.

한국 불교계는 조사를 발표하며 대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류의 평안과 행복이라는 인간불교의 주창은 서천의 성인께서 남긴 발고역락의 현대적 구현이었다"면서 "속환사바하시어 중생을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윤년) 익산삼사순례 - 미륵사지·심곡사·숭림사

삼사순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하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

익산시가 불자님들의 삼사순례를 앞두고 초청장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고도 백제의 왕도로서 불교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세계유산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은 선인들의 신앙과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고, 힐링과 기도를 만날 수 있고, 둘러보면서 행복과 환희를 품을 수 있는 불자들의 순례지입니다. 2023년은 때마침 익산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삼사순례와 방생 행사를 반겨 맞이하고자 합니다. 미리 방문을 알려주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안 내 처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1577-0072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백제역사유적 탐방
미륵사지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절터에 지금은 동탑과 서탑도 복원돼 관광객들과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백제 무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심곡사
깊은 골짜기라는 이름의 천년고찰, 7층석탑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떡목을 지닌 정정렬 명창의 득음을 기념하기 위한 떡목공연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왕궁리유적
아름다운 오층석탑과 왕궁터가 남아서 백제부활을 꿈꾸던 무왕의 웅지를 보여줍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줍니다.



힐링생태여행
숭림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보광전과 그안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딱 인생샷 배경으로 그만입니다.



데크, 연꽃, 하늘, 구름
용안생태습지공원
금강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휴식과 방생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